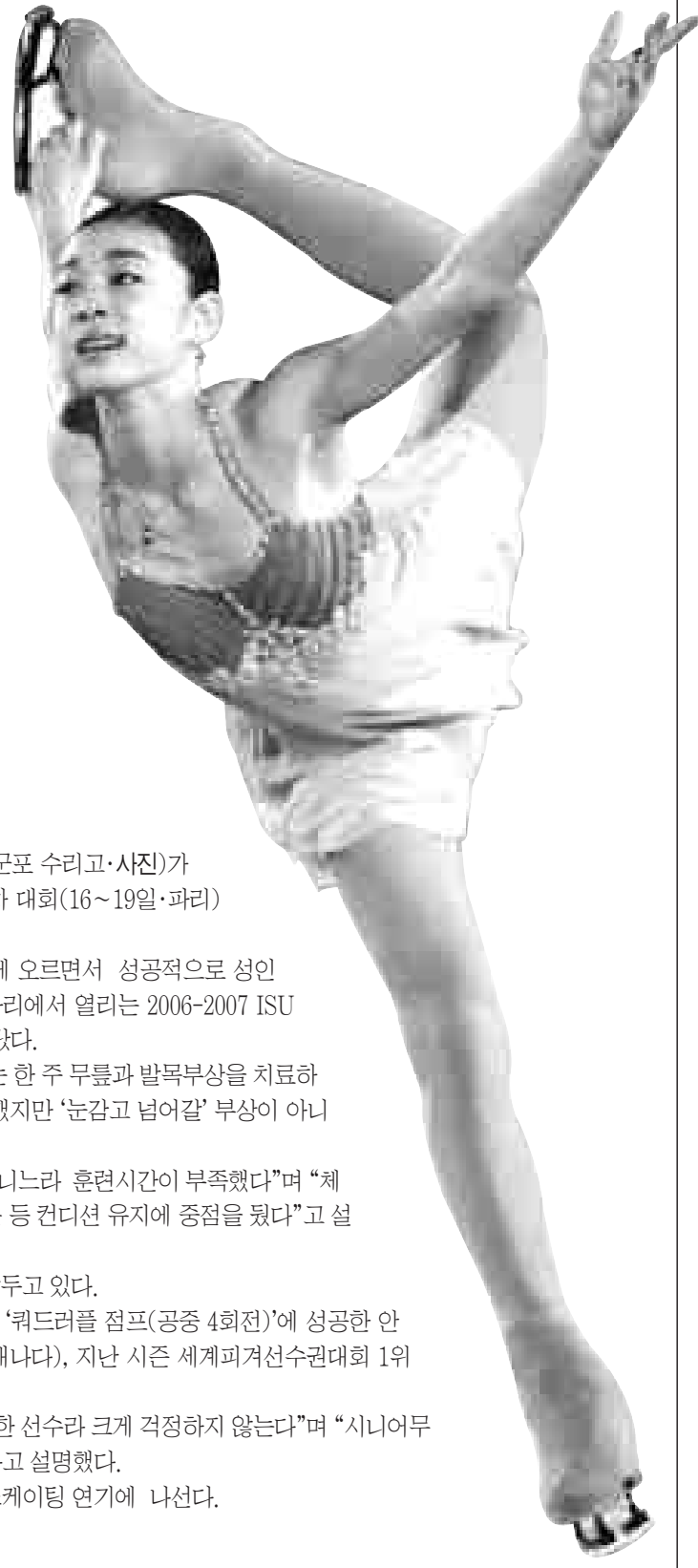


# ‘피겨요정’ 김연아 시니어대회 첫 금 도전



그랑프리 4차대회 오늘 개막  
막강 로세트 등과 정상 다툼

시니어 데뷔 무대에서 동메달을 따낸 ‘피겨요정’ 김연아(16·군포 수리고·사진)가 2006~200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4차 대회(16~19일·파리)를 통해 첫 금메달에 도전한다.

최근 캐나다에서 치러진 시니어 그랑프리 2차 대회에서 3위에 오르면서 성공적으로 성인 무대에 안착한 김연아는 16일(한국시간)부터 나흘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06~2007 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4차 대회 참가를 위해 15일 출국길에 올랐다.

지난 7일 시니어 그랑프리 2차 대회를 마치고 귀국한 김연아는 한 주 무릎과 발목부상을 치료하는 데 역점을 뒀다. 당초 캐나다에서 머물며 훈련을 계속하려 했지만 ‘눈감고 넘어갈’ 부상이 아니라서 귀국한 뒤 부상 부위에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다.

박분선 코치는 “귀국 후 하루 휴식을 취하고 치료를 받으러 다니느라 훈련시간이 부족했다”며 “체력을 보완하기 위해 프리 스케이팅 연기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등 컨디션 유지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연아는 막강한 실력파들과 경쟁해야 하는 어려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

시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 우승자이자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퀵드러플 점프(공중 4회전)’에 성공한 안도 미키(일본)를 비롯해 2차 대회에서 우승한 조아니 로세트(캐나다), 지난 시즌 세계피겨선수권대회 1위 키미 미야스네(미국) 등이 경쟁상대다.

박 코치는 “본인의 부담감이 가장 크겠지만 원래 승부욕이 강한 선수라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시니어 무대에 처음 도전을 하는 시기인 만큼 편하게 경기를 치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아는 18일 새벽 쇼트프로그램을 치르는 뒤 이튿날 프리스케이팅 연기에 나선다.

## ‘모래판’ 왕중왕 가린다

민속씨름 올스타 대회  
내일 경북 영천서 개막

올 시즌을 결산하는 민속씨름 KB국민은행 올스타대회가 17일과 18일 경북 영천체육관에서 펼쳐진다.

역대 민속씨름에서 피날레를 장식한 것은 천하장사대회였다. 하지만 작년에는 씨름 단 해체 등 내부 파행으로 천하장사가 열리지 않았고 올해는 시즌 도중에 참가한 지자체들이 생기는 바람에 시드 배정을 할 수 없어 올스타전으로 대체됐다.

따라서 올해 마지막 대회가 될 올스타전에는 시드 배정 없이 올해 열린 대회 성적을 토대로 체급별 상위 8명씩, 모두 32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17일 태백·금강 통합장사

(90.0kg이하), 18일 한라·백두 통합장사(90.1kg이상) 타이틀을 놓고 격돌한다.

통합장사전의 백미는 뽀뽀뽀뽀도 낮은 체급 선수가 무거운 체급 선수를 누르는 이변이 나오는 것이다. 이번 대회 한라·백두 통합장사전에서는 한라급 ‘변칙 기술의 달인’ 모재욱(마산시체육회)이 ‘포스트 이태현’의 자리를 노리는 백두급 박영배(현대삼호중공업)와 1회전에서 맞붙는다. 또한 한라급 최강자 김용재(현대삼호중공업)와 ‘귀공자’ 왕규연(현대삼호중공업, 백두급)의 격돌과 함께 한라급 문찬식(현대삼호중공업)과 백두급의 ‘왕눈이’ 염원준(나라유통)의 대결도 볼 만하다.

문찬식은 아마추어 시절 프로의 백두급에 해당하는 장사급에서 뛰었던 선수라 관록의 열원을 맞아 힘에서는 결코 밀리지 않는 경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태백·금강 통합장사전에서는 이성원(구미시체육회)과 장정일(현대삼호중공업), 김유황(현대삼호중공업)의 3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박종일(기장군청), 윤원철(구미시청, 이상 금강급)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는 KBS 1TV가 17일 오후 3시10분, 18일 오후 1시25분부터 실황중계한다.



박주영



오장을



정성룡

## 아시안 게임 뚝다 대표팀 합류...어제 출국

지난 14일 올림픽 축구대표팀 한일전에서 깨끗한 헤딩골을 터트린 박주영(서울)을 비롯해 오장은(대구), 정성룡(포항) 등 3명이 아시안게임 대표팀 합류를 위해 15일 밤 출국한다.

대한축구협회는 “한일전을 끝낸 박주영

과 오장은, 정성룡은 이날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로 이동한 뒤 아시안게임 대표팀 전지훈련에 참가하게 된다”며 “박지훈(수원)은 소속팀으로 복귀해 K-리그 챔피언결정전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이어 “16일 김 배어백 감독이 귀국한 뒤 21일 일본에서 치러질 올림픽대표팀 한일전 2차전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샤라포바 vs 대븐포트

## 국내에서 슈퍼매치

내년 1월1일 인천서

세계랭킹 2위인 ‘테니스 요정’ 마리아 샤라포바(러시아)가 2007년 1월1일 오후 6시 ‘주부여왕’ 린제이 대븐포트(25위·미국)와 슈퍼매치를 통해 세 번째로 한국 코트에 선다.

21일 오후 6시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벌일 ‘황제’ 로저 페더러-‘원손천재’ 라파엘 나달의 빅매치를 성사시키는 등 스포츠마케팅에 새 지평을 연 현대카드는 15일 오후 US 오픈 여자 단식을 제

과한 샤라포바를 초청, ‘현대카드 슈퍼매치 IV-마리아 샤라포바 vs 린제이 대븐포트’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새해 첫날부터 세기의 매치가 한국에서 열리는 셈인데 이번 대회는 인천광역시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대비해 초 현대식으로 새로 지은 인천 삼산체육관 특설코트에서 열린다.

지난 2004년 한솔여자코리아오픈 참가자 처음으로 방한한 샤라포바는 지난해 송파구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현대카드가 주최한 ‘흑진주’ 비너스 윌리엄스(48위·미국)와 슈퍼매치 I를 갖는 등 그동안 두 차례 한국에 왔다.

샤라포바는 2004년 Wimbledon 우승 이후 지난해 다소 주춤하기도 했으나 올 US 오픈에서 아밀리 모레소(3위·프랑스), 쥐스틴 에넬(1위·벨기에) 등 라이벌을 연파하며 두번째 메이저 대회 타이틀을 따내는데 성공, 예전의 위용을 되찾았다.

### 한국, 일본과 아쉬운 무승부

한국 올림픽축구대표팀이 속적 일본을 시종 압도하고도 아쉬운 무승부에 그쳤다.

홍명보 코치가 임시 사령탑으로 지휘봉을 잡은 한국은 14일 경남 창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1세 이하(U-21) 올림픽대표팀 한일전에서 전반 4분 박주영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으나 후반 19분 안테온의 어이없는 자책골로 동점을 내줘 1-1로 비겼다.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 예선을 위해 구성된 올림픽팀은 첫 공식경기를 패승으로 장식하지 못한 채 아쉬움을 남겼다.



16일(목)  
▲KPGA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골프 1R(13:00·MBC ESPN)  
▲제16 대륙간컵 야구대회(이탈리아-한국)(13:50·KBSN SPORTS)  
▲FIVB 세계 여자배구 선수권(14:20·Xports)  
▲MBC ESPN 대학장사씨름 1차대회 소장급(18:30·MBC ESPN)  
▲프로농구(전자랜드-모비스)(18:50·Xports, SBS스포츠)

에어컨+난방기+공기정화기를 1대로

국립 및 문화선화

02-955-0222

080-701-7117

그는 성공을 선택했다

080-333-3292

고개숙인 男性... "힌셰"로

080-333-3293